

몬트레이 한인 천주교회

303 Hillcrest Ave. Marina, CA93933

주님 공현 대축일 2023 년 1 월 8 일 (가해) 2 호



- ◆ 주임신부 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831) 220-1209
- ◆ 사목회장 정영순 크리스티나 (831) 737-0081
- ◆ 미사: 주일 미사 오후 4 시, 목요 미사 오후 6 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 분 전
- ◆ 성체 강복: 매달 첫째 목요 미사 후 ◆ 봉성체: 매달 셋째주 금요일
- ◆ 레지오 모임: 그리스도의 모후 목요일 4 시 20 분, 바다의 별 목요일 4 시반
- ◆ 성령기도회: 목요 미사 후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 님 세 상 모 든 민 족 들 이 당 신 을 경 배
하 리 이 다.

제 2 독서 에페 3,2.3 ~ 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입당 487 봉헌 210 성체 175 파견 100

† 전례 봉사

복 사	강석우 안드레아, 이수지 데레사
독 서	이만기 프란치스코 (1), 김완희 크리스티나 (2)
해 설	명정옥 마리오셉
봉 헌	장현수 모세, 장금란 유스티나

미사 참례자수

목요 미사 (12/29) 21 명, 주일 미사 (1/1) 47 명

우리의 정성

주일 헌금 (1/1): \$367

교무금: 곽신철 (1), 장현수 (1)

사제관 건립 기금: 총액 \$89,284.32

기도해 주세요



김재희 헬렌, 송정옥 프란치스카, 알리샤 라우시, 양화자 소화 데레사
전경순 쟈마, 정영숙 레지나

알려드립니다



주임신부님 부친 이영기 제노 형제님이 선종하셨습니다.
오늘 미사 후 그리고 내일 오후 5 시에 고인을 위한 연도가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임신부님께서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주일 미사는 산호세 한인성당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요 미사는 없겠습니다.
- 1 월 13 일(금) 오후 7 시 몬트레이 구역 모임이 이은미 리디아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장소: 608 Lopez Ave, Seaside
- 1 월 15 일(일) 주일 미사 후에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 1 월 22 일(일) 설 미사가 있습니다. 위령미사 봉헌하실 분은 전례위원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또 하나의 주님 성탄 대축일이라고도 합니다. 동방의 세 박사가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묵상 나눔

“나는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의미를 담아서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하는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녀, 건강, 아니면 영원한 행복. 내 보물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묵상해 봅니다.



성모님은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살아지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구원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외면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